

愛敎 敎育영상 감상문

학번과 이름	10721 전소현
일시	2020. 8. 5
영상 주제	[다시, 학교] 수행평가와 활동형 수업은 학생들의 교육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학력 저하 문제 더욱 악화 시킨다.
제목	다시, 학교 - 가르치지 않는 학교, 수업의 주인
소감	<p>개정된 교육 과정 방침에 따라 수업 시수를 줄이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수행평가와 학생 주도형 활동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켰다. 학생과 교사 모두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고 사실상 주입식 교육이 쌍방향으로 가장 편한 방식이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에는 한계가 있고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이 아니므로 사고력 확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나는 교실에서 모둠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주도형 활동보다 주입식 교육이 더 이익이 된다. 주도형 활동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우리에게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기고사에는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부분이 아닌 전체이다. 이러한 경우 시험 대비를 위해 학교에서 맡은 부분이 아닌 부분도 새롭게 다시 공부를 해야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또한 모둠형 활동과 모둠 수행평가 과제는 이끌어 가는 사람이 써야하는 에너지는 큰 반면, 무임승차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학생 주도형 수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규율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p>

학번과 이름:

일시:

영상 주제:

제목:

소감: